

# 미완으로 남은 인간의 아픔

李相文의 「黄色人」을 읽고

권택영

문학평론가 · 경희대 영문과 교수

“너는 게르만이나 슬라브족의 피가 섞였나 봐. 왜 그리 덩치가 크고 코까지 산처럼 우뚝하냐?” (제1권, 325쪽). 「황색인」의 주인공 박일우의 모습이다. 월남전의 생생한 체험을 그린 이 소설을 읽고 있노라면 도저히 작가의 체험이 아니고서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인공과 작가를 일치시키게 되는데, 이런 알팍한 계산을 뒤엎듯 실제 그의 모습은 크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런데 웬일일까. 소설을 다 읽고 나서 그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 어딘지 거인 같은 느낌이 드니. 잠재된 능력, 그것도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무한히 잠재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정확하고 끈덕진 문장, 등장인물들이 지닌 극복에의 의지 등이 패배와 탈출이 엇갈리는 스토리 속에서 그의 다부진 인상만큼이나 꿈틀댄다.

우연히 작가 이상문을 만나던 날, 우리는 최근의 대하소설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분위기는 몇권씩 출간되는 소설들이 왜 갈수록 맥이 빠지고 시선을 끌지 못하는가, 결국 길게 씌어지는 소설은 대중성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문학성에서는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쪽이었다. 침묵을 즐기는 그에게 「황색인」은 어떠냐고 물었다. 술김이었지만 세련으로 끝장을 본다든 것이다. 그런데 세련을 다 읽은 지금 나는 맑은 정신으로 가만히 생각해 본다. 그는 결코 끝장을 낸 게 아니었다고. 순전히 독자의 권리로써 나는 이 소설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기고 싶다. 왜 그럴까. 혹시 압도적인 제1권이 서두라면 2, 3권은 모테라토, 그리고 아직 클라이막스와 마지막 서사가 빠진 것은 아닐까.

제1권은 월남의 벽 컨택, 황칠성 상병의 의문의 죽음과 그 자리에 대체되는 박노하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랄프 엘리슨이 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어느 장면을 연상시키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초현실주의적 비전 속으로 독자는 차츰 한 계단씩 내려선다. “도대체 이게 정말 일어났던 일일까”라고 묻고 싶을 만큼 암흑(악)의 심장부가 생생히 재현된다. 부패의 극치를 보여주는 ‘색색집’, 인간의 부끄러움과 고결함을 제거시키고 잔인함과 맹목성만을 남기려는 갖가지 훈련들... 잔인하기로는 적도 야군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이 잔인함 속에서 교차되는 두가지 테마가 있다.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이다.

부패한 남부 월남도 아니요, 베트남도 아닌



**순전히 독자의 권리로써 나는 이 소설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기고 싶다. 왜 그럴까. 혹시 압도적인 제1권이 서두라면 2,3권은 모테라토, 그리고 아직 클라이막스와 마지막 서사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순수히 월남민족의 단일성을 회복하려는 쫓돏 마우홍, 즉 왕정복고주의를 지향하는 황색인집단이다. 주인공 박노하는 월남의 역사와 그들의 이념에 노출되면서 월남전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한다. 그리고 이런 민족주의적 색채는 그 집단에 속한 월남 여인과의 사랑, 그리고 군수물자유출로 자금조달에 간접적으로 협조하는 김중사와의 인간적인 매듭에 함께 얽힌다. 그래서 인간이 이정도로 잔인하구나라는 자기혐오감은 따스한 동포애라는 또다른 측면에 의해 용해된다. 인도주의를 실천하려다 죽은 미군병사 김멜과, 그의 뜻을 실천하려다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되는 김중사. 머리통에 대못을 박는 잔인성 때문에 미친 허만호의 마지막 변모 등은 인간이 얼마나 다층적인, 참으로 알 수 없는 존재인가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이런 중심테마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전달되어 작가가 꽤나 기법에 신경을 썼다는 인상을 준다. 황칠성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벽 컨택이 지닌 돈에 얽힌 비밀은 독자의 호기

심을 지속시키는 숨겨진 장치이다. 또 실제 보고서와 각종 서류를 인용함으로써 현실감을 증가시킨다. 편지형식, 혹은 지극히 유통적인 서술시점 역시 박일우의 과거와 박노하의 현재를 평행으로 이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겪는 좌·우 이념의 대립, 하나꼬와 떡의 출생에 얽힌 민족적 비극... 이 가운데서 황색인 박노하는 끊임없이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리고 그 대답은 월남과 한국의 비극을 같은 차원에 놓으려는 여러가지 기법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니까 제1권은 그 주제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 한편의 소설로 충분할 것 같으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웬일인가. 의문의 죽음이 풀리고 허만호의 미친 사연이 밝혀지고 벽 컨택의 비밀과 떡의 신분이 드러난다. 게다가 김중사의 죽음은 얼핏 이 소설을 마감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게 다 해치우면 독자의 몫은 어디에 있는가. 귀국선이다. 그래서 제2권을 펼친다. 주인공의 옛 친구들이 귀국선에서 펼치는 사건들이다. 옛 친구들의 서술로 월남전의 경험과 한국인으로서의 과거가 연결된다. 지독스런 가난과 부정한 정부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이 그내용이다. 항해도중 세면장 개방을 놓고 벌이는 미군장교와의 투쟁은 월남전에서 얻은 새로운 인식으로 민족주체 의식을 지키려는 투쟁의 한 예를 보여주는 듯싶는데, 그 초점이 미군인지 한국

의 지배층인지 분명치 않다. 아마 작가도 모르는 사이 양쪽 모두의 책임으로 독자에게 읽히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 1권보다 속도감이 줄고 평면적인 서사로 진행되는 제2권은 파월장병의 유복아를 지닌 미스 구와 이 사실을 알게되는 아버지에 관한 서술에서 멈춘다.

집에 돌아온 주인공이 당시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데모에 참여하는 것이 제3권의 주요내용이다. 전쟁에 참가해보지 않고서 제1권이 나올 수 없듯이, 제3권 역시 당시 데모에 참여해본 사람만의 것이라고 느껴지게 현실감이 생생하다. 주인공은 월남전에서 얻은 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책임을 떠맡고 있다. 그런데 작가가 그의 어깨에 지운 짐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 그는 비틀거린다. “미국은 실종자의 숫자를 제대로 밝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말과 제국주의로서의 미국에 대한 주인공의 분개가 구분되어 있지 못하다. 곳곳에 조정되지 않은 비판이 알알이 박혀 있다. 설마 대학 2학년 대학생의 시각과 작가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 시각은 작가의 것인가, 박노하의 것인가. 또 주인공의 외모에 반해 데모대열에 합세했다가 후일 하룻밤 정사를 나누는 차경미 사건은 흥미는 있지만 작품의 정의감을 손상시킨다. 군에서 월남으로, 다시 고국으로 타의에 의해 움직여온 박노하의 행위들이 아직은 독자에게 그리 성숙한 것 같지 않다.

문학은 한 시대의 현실감 있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그것이 또한 미학적인 구성을 통해 영원한 인간의 문제로 상승되어야 한다는 토마체프스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한편의 작품이 던지는 문제는 시대의 아픔인 동시에 인간의 아픔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3권에 드러난 문제를 수렴하는 작가의 시각이 인간의 아픔을 던져주기를.

제2권의 시작 부분을 잠깐 되돌아보자. 떡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귀국하는 연인의 트럭을 뒤따른다. 처음에는 그녀를 야유하던 군인들이 두 연인의 손이 닿을 때 감격의 박수를 친다. 야유도 박수도 같은 인간의 행위이기에 작가는 그 둘을 초월한다. 그러면서도 문제만을 던질 뿐 해답은 독자 스스로 내리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긴다.